

# 정보통신과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소고

A Study on Christian's Attitude  
about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이건창

- I. 들어가면서
- II. 정보통신 물결의 최근현황
  - 1. 인터넷
  - 2. 국내 정보통신 사업현황
  - 3.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 III. 정보통신은 우상인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 IV. 맺으면서

##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n issue of which kind of World View Christians should to the whopping development of recent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TC) technology. It is true that the ITC technology has drastically changed our way of life as well as thinking, which is the main topic we are going to discuss thoroughly in this paper. Firstly, in section II, we adress the recent trend of ITC technology including Internet, the status quo of domestic ITC-related activities, and intelligent agent. Secondly, the characteristics of ITC technology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it would become a stumbling stuff to trap our religion into idolatry. Thirdly, this paper is concluded with some remarks how well we can use this seemingly attractive ITC technology for enlarging the Kingdom of God.

## I. 들어가면서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은 요즘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인터넷(Internet),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 네티즌(Netizen), 넷스케이프(Netscape), 모자이크(Mosaic), 홈페이지(Home Page), 정보 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등의 용어는 요즘 가장 널리 회자되고 있는 정보통신의 용어이다. 그러나, 솔직히 이러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한 일반인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내 통신인 하이텔(HiTel)이나 데이콤(Dacom)도 아직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는 판에 무슨 인터넷을 사용하는가?라는 반문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가 향후 우리의 생활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이러한 예상 이면에는 정보통

신 분야가 막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노른자 분야라는 사실이 인식되어 있다. 미국의 AT&T나 Bell 전화회사, 영국의 BT(British Telecom) 등은 통신서비스 하나만으로도 세계를 호령하고 매출액 기준 최상위 기업에 랭크되어 있다. 수 천만 명의 고용효과는 물론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자체가 갖는 힘 때문에 선점 기업의 경우 재계의 그룹순위를 바꾼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정보통신시장은 기업간의 경영전략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도 치열하다. 한번의 잘못된 기술선택은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소생이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막대한 수익성이 보장되지만, 반면에 그에 못지 않는 경쟁력이 요구되는 분야가 바로 정보통신 분야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 홍길동 씨의 가상적인 아침일과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홍길동 씨는 아침에 눈을 뜬다. 지난 밤 밤늦게 미국과 홍콩의 고객과 컴퓨터 통신으로 계약조건에 대하여 실랑이를 벌인 탓인지, 아직 피로가 덜 가졌다. 그러나 항상 해 왔던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해 온 Q.T.를 거를 수는 없는 법. 이불을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책상 앞에 앉으니 그 때 시간이 7시다. 30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큐티 후 아내가 차려준 식사를 마치니 8시. 자, 이제는 슬슬 일어나서 차에 시동걸고 출근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 된 셈인지 우리의 홍길동 씨는 오히려 식탁에 앉아서 차까지 한 잔 하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 차를 다 마시고 시계를 훑어 보니 9시가 가까운 시간이다. 그러나, 홍길동 씨는 출근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로 가서 ‘노트북 컴퓨터’(notebook computer)를 켜고 어제 미국과 홍콩의 고객과 벌인 계약상담 결과를 정리하여 담당 임원들에게 ‘팩스모뎀’(fax modem)으로 송신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오전 일은 다 끝마친 셈이다. 남은 일은 회사로부터의 답신을 기다리는 일뿐. 회사로부터 이 계약안에 대한 결제가 나올지 여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결제된 서류는 홍길동 씨가 들고 다니는 노트북 컴퓨터 내에 내장되어 있는 ‘전자자료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프로그램’에 의하여 간단하게 홍길동 씨가 받아 볼 수가 있으니, 그야말로 여유있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10시쯤 되니, 책상에 켜놓은 노트북 컴퓨터에서 나지막한 beep음이 들린다. 바로 결제서류가 도착했다는 신호음인 것이다. 얼른 뛰어가서 컴퓨터 모니터를

살펴보니 결제된 서류가 생생한 화면으로 도착해 있었다. 화면 하단의 결제란에는 사장님 사인이 전자펜(electronic pen)으로 선명히 입력되어 있었다. 그리고 화면을 잠깐 위로 스크롤(scroll)하니, 부장님의 축하 메시지가 서류와 함께 올라와 있었다. “홍과장! 이번 일은 성공적이었네. 수고했어”. 아, 정말 기분좋은 아침이군 ... 혼자 중얼거리면서 홍과장은 미국과 홍콩의 고객에게 타결된 계약조건을 최종적으로 공식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우편(electronic mail)으로 보냈다. 물론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말이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중 상당 부분은 지금의 기술로도 가능하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예에 등장하는 홍길동 과장은 우리들과 똑같은 회사원이다. 이 사람은 요즘의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집에서 또는 자기가 일하고 싶은 그 어떠한 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네티즌 회사원인 것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사무기기는 인터넷과 팩스모뎀(Fax Modem)이 장착되어 있는 소형 노트북 컴퓨터(notebook computer)이다. 이 사람은 이 노트북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한 후 수시로 회사의 고위 임원들에게 처리결과를 그 즉시 온라인(on-line)으로 보고한다. 통신수단은 전화선과 연결된 노트북 컴퓨터이다. 컴퓨터 내의 통신장치인 모뎀(modem)을 통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어떤 사람과도 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것이다.

이같이 이제는 싫건 좋건 정보통신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이다. 그것은 신앙인이건 아닌건 가리지 않는다. 이제는 어떠한 시각으로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바라볼 것이냐만 남은 것이다. 무조건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미심쩍은 마음으로 일단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환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마음껏 향유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다음 II장에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최근의 주요 주제를 다룬다. 적어도 이러한 최근 주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 정보통신과 기독교세계관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과 정보통신 기술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I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 II. 정보통신 물결의 최근현황

본 장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국내 정보통신 사업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다. 그 다음 최근 정보통신 주요이슈 중의 하나인 인텔리전트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에 대하여 분석한다.

### 1. 인터넷

인터넷(Internet)은 무한한 정보의 바다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인터넷은 철저히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혼자서만 조용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을 선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번 인터넷에 접속하면 내가 남의 정보를 얻어볼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남에게 나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넷은 지구를 하나의 정보촌(情報村)으로 묶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인터넷의 세계 안에서는 거대한 양의 정보를 지구촌 그 어느 곳이라도 순식간에 주고 받을 수가 있다. 어느 한 회사의 노력이 모든 경제계에 순식간에 알려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은 지구상의 모든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연구의 진척상황을 즉시 검색할 수가 있다. 동료들이 작업한 내용 뿐만 아니고, 수백만 권의 책을 갖춘 인터넷상의 가상 도서관(Virtual Library)에 들어가 마음대로 정보를 검색하여 받아올 수가 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도 시내전화요금으로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회의를 할 수가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도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사이버 뱅크(Cyber Bank) 또는 전자은행(Electronic Bank)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 인터넷은 거대한 정보 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 Highway)이다. 말하자면 정보통신을 위한 등뼈(Backbone)인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어떠한 기종의 컴퓨터라도 그것이 노트북이건, 일반 PC이건, 또는 대형 컴퓨터이건 상관없이 인터넷이라고 하

는 정보 초고속도로에 접속할 수가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을 네티즌(Netizen)이라 하는데, 이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Network과 Citizen의 합성어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계층은 천차만별이다. 나이를 보면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60대까지 있고, 직업은 과거의 경우 대개 연구원 또는 교수가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인터넷 상에서 주요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고 한다.

어찌 됐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인터넷이야말로 20세기 말에 새롭게 등장한 선교매체에 틀림없다. 기존의 문자 뿐만 아니라 음성과 화상(Image)까지도 인터넷상에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웹(web)이 활성화 되면서 전자선교 도구로서의 성격이 더욱 부각되었다. 인터넷 상에는 현재 많은 사이트(Site)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이트는 해당 조직 또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네티즌들에게 제공하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많은 그리스도인 네티즌들이 활발하게 성경관련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사용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 NTIA에서 1995년 7월에 행한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는 백인 남성이면서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소수민족이면서 중하류층의 사람들의 경우는 대개 구인 광고를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한다. 즉,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여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인터넷 사용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병원, 도서관, 관청 등과 학교 등에 인터넷 정보검색 컴퓨터를 설치하여 누구든지 쉽게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물품거래 및 다양한 상거래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Commerce Net에서도 비슷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인터넷의 사용빈도는 비디오 가게에

서 빌려온 비디오를 틀어서 보는 정도보다 더 많은 사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용계층은 압도적으로 남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보고도 흥미롭다. 이렇기 때문에 표본조사에서 유의할 점은 인터넷으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함부로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터넷 사용자가 성별로나 계층적으로나 특정집단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령층으로 보면 적게는 16세에서 많게는 6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을 보이고 있다.

사업가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상품 구매력인데, 거의 2,500만명 가량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다고 한다. 소득수준을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연봉이 5만불 이상이라고 한다. 즉, 우리 나라 돈으로 4,000만원 가량의 중상류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대부분 학력있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계층임에는 분명하다. 문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점점 사회가 정보를 많이 소유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소득수준이 벌어지는 정보화사회가 되면 될수록 현재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NTIA 조사결과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정부가 의도적으로 복지후생의 차원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뿐 아니라, 인터넷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가 인터넷 상의 Commerce Net 등을 통하여 거래를 체결하고, 인터넷 상의 사이버 은행(Cyber Bank)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무역결제 업무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거대한 산업구조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통산성에서는 1996년 1월부터 350개 이상의 기업체와 50만명의 소비자들이 가담하는 세계최대 전자거래 실험을 2년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실험을 위하여 무려 3,000억엔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별도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였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오는 97년 전자거래 실용화를 위하여 94년부터 약 90개 회사들이 참여하는 유사한 전자거래 실험을 계속 해 오고 있다.

인터넷의 활성화는 증권거래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런던증권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와 함께 세계의 증권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장이다.

이러한 런던증권거래소의 아성이 인터넷으로 증권거래를 중개하는 두 개의 신흥회사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다. 즉, ESI(Electronic Share Information)사와 TP(Trade Point)사의 출현이 그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증권결제 시스템과 연결하여 기존의 거래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다이와 증권회사에서도 96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전화방식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값싸고 쉽게 할 수가 있다. 즉, 월즈 채트(Worlds Chat)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내전화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하는 통신은 아니지만, 개인통신서비스(PCS: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간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각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이동전화 주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SM 통화체제, 즉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나라 간의 국경을 초월하여 휴대용 전화기 한 대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기 나라 안방에서 전화하듯이 통화를 할 수가 있고, 아울러 시속 300킬로미터를 달리는 차 안에서서도 통화가 끊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들은 지금까지의 통신수단에 비하여 가히 혁명적인 통신수단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 2 국내 정보통신 사업현황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놓고 이에 따라 각종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제3차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미 경쟁이 도입된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전용 회선시장 이외에 95년 중 국제전화, 무선호출, 회선입대, PCS, TRS, CT-2, 무선 데이터 시장에 추가의 신규사업자를 허가한다.

(2) 96년 중에는 시외전화, 위성통신서비스, 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 사업자를 허가하여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경쟁을 도입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를 완화하여, 통신설비 제조업체의 지분한도 규제를 철폐하고 기간통신 사업자 간 상호 출자를 허용한다.

(4)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수시로 받으며, 사업권 배정에 준 통신사업경매제도를 도입한다.

(5) 한국통신을 대표적인 종합통신사업자로 육성한다.

(6)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의 원칙하에 96년까지 국내 경쟁체제(기반)를 구축하고, WTO협상결과에 따라 98년부터 단계적으로 국제경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1998년 이후 대외 통신시장개방을 전후하여 많은 분야에서 추가사업자 지정이 예상되는데 이를 정보통신사업 분류체계(통신개발연구원, 1996. 6.)에 따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정보통신부는 96년 6월 10일 차세대 통신사업으로서 PCS, TRS, CT-2, 회선입대, 무선데이터통신, 플립스(FPLMTS) 등에 관한 기본 방침을 설정발표하였다. 이중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는 21세기 초에 지금의 휴대전화를 모두 밀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이다. 지금의 휴대전화와 PCS와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하는 주파수이다. 즉 휴대전화가 900MHz대의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비해 PCS는 이보다 높은 1800 ~ 1900MHz대의 주파수를 쓴다. 주파수 대역이 이같이 넓어지면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고 혼선이나 통화 중에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어 소위 '통화품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력사용량이 줄어 휴대전화의 크기도 현재보다 작아지고,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대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도 기대할 수가 있다. PCS용 단말기의 가격도 20만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통화요금도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싸

<표 1> 향후 예상되는 신규 초고속 정보통신사업 및 서비스

	기존사업제도	새로운 사업제도
기존통신망/ 주파수 이용	(그룹 1: 기존서비스) 시내전화/시의전화/국제전화, 기존 주파수를 이용한 PCS/ CT-2/TRS/무선호출/무선데이터	(그룹 3: 틈새형 서비스) 회선재판매, International Call Back, 인터넷 전화, 해저 광케 이블 산업
새로운 통신망/ 주파수 이용	(그룹 2: 진화형 서비스) 시내전화(CATV망, WLL), 새 로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PCS/CT-2/TRS/무선호출/무선데 이타, 부가 통신(케이블 TV망), 초고속사업자	(그룹 4: 미래형 서비스) GMPCS, 위성사업(중계기 입 대, 통신 방송 전송), IVDS (Interactive Video and Data Service), 쌍방향 무선 호출, FPLMTS, 무선케이블 TV 전 송(MMDS, LMDS)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서 93년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5년도 말 Personal Communication사가 워싱턴의 볼티모어 지역에서 첫 서비스에 들어간 것을 비롯, 97년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가 시작된다. 일본의 경우 간이형 PCS라고 불리는 PHS서비스를 95년 7월부터 개시하였다.

TRS(Trunked Radio System)는 휴대전화가 1대1 통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특징이다. 통화범위가 넓어 30~50km로 기존 무전기보다 넓고 380MHz, 800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존 무선통신에 비해 통화품질이 훨씬 깨끗한 것은 물론 이용요금도 이동전화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는 물론야 영업망 관리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보험판매사원은 본사는 물론 다른 판매사원과 우기적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고, 간단한 조작으로 그룹통신, 선

별통신, 개별통신, 긴급통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화할 수가 있다. 택시회사에서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사무실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한꺼번에 연락을 할 수가 있고, 기사들끼리 1대1 통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TRS망을 이용하면 같은 주파수대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위치추적과 아울러 통신이 가능하다. 남산 꼭대기에 TRS송신탑을 설치하면 서울 전역에 통신이 가능할 정도로 통화환경이 넓다. 또 TRS전화기로 시내외전화 국제전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CT-2는 휴대전화로서 발신만 되도록 만든 서비스이다. 유럽에서는 흔히 집안에서 쓰는 무선전화기를 CT-1(Cordless Telephone-1)이라고 부르고 CT-2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본다. 즉, 집안에서만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이 설치된 반경 300~600m 내에서 통화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CT-3는 PCS와 비슷한 것으로서 착발신이 가능한 휴대통신을 말한다. CT-2는 이같이 발신전용이므로 전화기가 호주머니에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작고 가격도 10만원대로 매우 싸다. 요금도 시내전화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에서도 기존의 공중전화 부스나 또는 건물옥상 등에 작은 안테나가 달린 기지국을 하나씩 붙여서 이를 중심으로 부근의 CT-2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할 예정이므로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주고객층은 대학생이나 주부들로서 값싼 휴대전화를 찾는 사람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당분간 도시지역에서만 서비스되는 것이 약점이다.

회선임대는 한전, 도로공사, 철도청 등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업체들의 통신 회선 임대사업을 합법화한 것이다. 그 동안 통신사업은 한국통신, 데이콤 등 법적인 자격을 갖춘 기존 통신사업자들에게만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한전 등 자가통신망을 갖춘 업체들은 여분의 통신망을 한국통신 등에 빌려주어서 다시 다른 기업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통신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회선 임대가 합법화됨으로써 앞으로 자가통신망을 가진 업체들은 남은 통신회선을 다른 기업에게 독자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시내외전화, 국제전화 등 기본통신사업에는 당분간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98년 통신시장개방을 계기로 시내전화 등 기본통신분야에도 경

쟁체제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이들 기업들은 일단 기본통신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무선데이터통신은 야외에서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자료 등 비음성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가령 택시에서 내릴 때 신용카드를 주면 택시기사는 무선으로 신용카드 조화를 끝낸 후 대금을 결제할 수가 있다. 영업사원이 노트북 컴퓨터로 무선으로 본사와 자료를 송수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선데이터통신과 관련된 서비스는 무한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플림스(FPLMTS)는 일부 선진국에서 상용화하기 시작한 개인휴대통신(PCS)을 더욱 발전시킨 이동통신수단으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개인통신개념으로서는 가장 첨단인 통신서비스이다. 즉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휴대폰에 달린 모니터로 세계 어디서나 음성은 물론이고 동화상까지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플림스를 멀티미디어 이동통신이라고도 부른다. 주파수 대역은 1,885~2,025MHz 그리고 2,110~2,200MHz가 있다. 이는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일된 방식을 사용하여 국내외 구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플림스는 제3세대 이동통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이동통신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한 데 따른 것이다. 즉, 현재 널리 이용하고 있는 아날로그셀룰러 휴대전화를 1세대 이동전화라고 부르고, 디지털 방식 이동전화를 제2세대 이동전화라고 부른다. 즉, 국내에서 상용화 단계에 있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동전화나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GSM(유럽 방식 TDMA 디지털 이동전화: Global Service Mobile) 이동전화 등이 바로 2세대 이동전화이다. 또 일본의 간이형 개인휴대통신인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도 2세대에 속하며 초기단계 PCS도 이 단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3세대 이동통신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기술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플림스와 유럽에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가 여기에 속한다. 유럽에서 개념을 정립

한 UMTS는 추구하는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이 플립스와 동일하다. 플립스는 기존 이동전화, 삐삐 등 개별적인 통신 시스템을 통합하여 한 개의 단말기로 음성은 물론 데이터, 영상 등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이다. 특히 플립스는 앞으로 위성이동통신망과 연계돼 전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어서 완벽한 글로벌 통신수단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2001년까지 관련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1단계로 ITU의 국제표준화 계획을 고려, 99년까지 정부와 업체가 각각 315억원씩 690억원을 투자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를 중심으로 플립스의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모델의 기능을 검증하고 이를 ITU에 제안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어 추진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업체 간의 경쟁개발을 통해 2001년께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용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전액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첨단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분야는 다음 <표 2>와 같이 크게 7개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같은 신규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국내시장 규모가 오는 2001년이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요약한 것은 다음 <표 3>과 같다.

### 3.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최근 인텔리전트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는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통신 분야의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는 다른 말로 소프트봇(Softbot), 노봇(Knowbot), 인포봇(Infobot) 등 여러 가지 유사어로 불리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여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대신 지능적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Bates 1994; Etzioni et al. 1994; Goodwin 1993; Houlder 1994; Liu et al. 1990; Maes 1994).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찾기, 파일복사, 자료검색, 메시지 전달, 상담, 물건구입, 비교쇼핑, 계약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표 2>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분야

분 야	설 명
행정부문	정부행정부문(부처내, 부처간), 대국민 행정부문(기업, 개인), 민원 행정부문
공공부문	타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철도 등), 각종 공공서비스(전기, 수도, 가스, 소방, 방재, 체신, 우편 등)
산업정보화	행정부처(국세청, 항만청,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등), 국내의 금융기관 / 기업 간의 거래 자동화와 전자거래(EC: Electronic Commerce)의 도입, 물류, 유통
기업정보화	기업내, 그룹내, 계열기업 간, 기업과 외부 정보원 간 정보시스템의 구축
사회정보화	홈뱅킹(금융기관과 가계), 홈쇼핑(슈퍼마켓과 가계), 재택근무(기업과 가계), 인력채용시장, 전자중고시장(개인과 개인), 여론조사 등
교육부문	가정자동화(Home Automation), 영화, 음악, 방송, 신문, 오락, 교양, 전자신문, 여행, VOD, 취미, 레저
가계부문	추진체계설비, 사회여건조성, 연구기술관리, 기술표준의 제정공표, 기간망의 계획, 설계, 설치, 보수유지관리, 물리망의 공동구축 등 기반조성

일들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사용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한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는 사용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망 안에 들어가서 공급자 게이트웨이(supplier gateway)나 디렉토리 서비스 등과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저장매체에 접근한다. 거기에서 사용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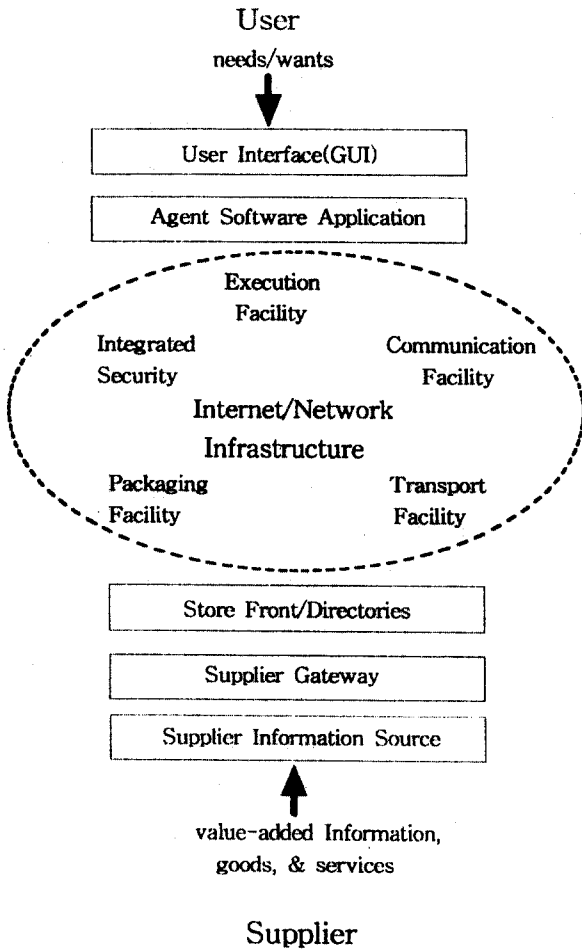
&lt;표 3&gt; 신규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예측

(단위: 억원)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PCS	-	1,234	3,638	8,106	13,268
TRS	155	236	432	687	1,382
CT-2	288	375	489	637	830
무선데이터	13	27	59	116	230
회선임대	5,036	5,417	5,798	6,178	6,559
국제전화	5,535	5,951	6,367	6,783	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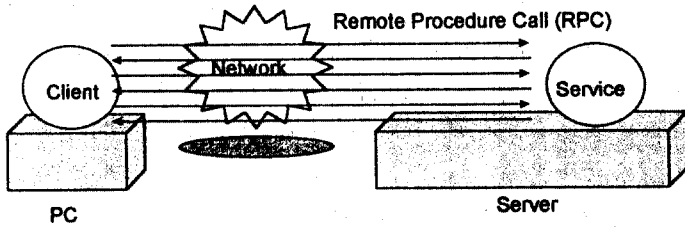
원하는 적당한 정보를 찾은 후에 다시 사용자로 돌아와서 자기가 찾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 통신망에서 활용되는 주요한 원칙은 원격프로시저호출(RPC: Remote Procedure Calling)이라 불리는 것이다. RPC 패라다임은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개념을 하나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의 프로시저(procedures)를 호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이 같은 RPC 방식의 패라다임은 컴퓨터 통신 이전에 서로 프로토콜을 맞추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RPC 방식의 통신방법은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를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원격프로그래밍(RP: Remote Programming)방식이 도입되었다. RP 방식은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을 하나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의 프로시저를 부르는 것 뿐만 아니라, 수행해야 할 프로시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그림 3). 따라서 RP 패라다임으로 통신하는 컴퓨터는 일련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에 기초하여 자료를 송수신할 수가 있다. 이러한 원격 프로그래밍 방식은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customization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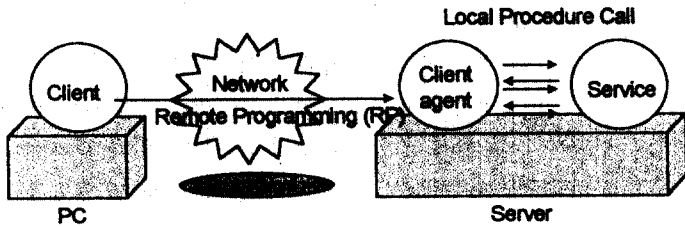


<그림 1>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구조





<그림 2> RPC의 구조



<그림 3> RP의 구조

이러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기술적인 특징은 향후 정보통신망의 인프라구조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수행구조(Execution Facility):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환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춘 구조를 말한다. 하드웨어의 경우, PC, 클라이언트/서버, 대형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활용분야별로 천차만별

이기 때문에 아직 통일된 언어는 없지만, 일단 크게 나누어 세 가지 형태로 집약이 된다. 즉 일반 범용언어 & 스크립트 언어(general purpose programming & scripting languages), 일반 범용 이동코드 언어(general purpose mobile code languages),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전용 이동코드 언어(intelligent agent-specific mobile code languages) 등이 그것이다.

### ① 일반 범용언어 & 스크립트 언어

여기에는 주로 C나 C++, Lisp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언어는 대개 데이터 베이스 언어인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이나 웹 전용 스크립트 언어인 Perl 등과 같이 쓰인다.

### ② 일반 범용 이동코드 언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언어는 Java이고, 이의 데모형태로 소개된 Hot Java 등이 대표적인 일반 범용 이동코드 언어이다. 이는 특히 Netscape에 표준언어로 채택되어 더욱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Safe-Tcl, Python, Scheme48, Gulle, Obliq, Logicware, ScriptX, Phantom 등이 있다.

### ③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전용 이동코드 언어

스탠포드대학의 Yoav Shoham교수는 AOP(Agent Oriented Programming)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소개하였다(Shoham 1993). 여기에 기초하여 개발된 AGENT0라는 언어가 있지만 아직 완성단계에 있는 언어이다. IBM에서는 최근 자사의 대표적 속성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언어인 REXX언어를 개선한 Object-REXX언어를 소개하였다.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전용 언어는 Telescript이다(White 1994). 특히 Telescript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여러 서버를 접속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고 보안에 관한 많은 특성도 가지고 있다. Telescript를 개발한 General Magic사는 애플, 모토롤라, 마쓰시다, 필립스 등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 대화구조(Communication Facility):

이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어떤 메시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구조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서로 상이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간에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cGill대학교의 Marc Belgrave가 제안한 Unified Agent Architecture는 여러 형태의 메시지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화구조이다.

▲ 전달구조(Transport Facility):

이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를 다루는 구조이다. 이는 주로 HTTP, TCP/IP, 또는 SMTP 등과 같은 대표적인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 포장구조(Packaging Facility):

이는 내부구조와는 상관없이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를 관련 정보로 포장하는 표준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즉, 상태정보, 목표정보, 기능정보, 방법정보 등을 포장하여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구조이다.

▲ 통합보안구조(Integrated Security Facility):

자료 송수신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주인이 누구이며, 출발지는 어디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구조이다.

이같은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특성은 향후 정보통신 분야에서 사용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듯 엄청난 속도와 기능으로 발전해 가면서 실제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 III. 정보통신은 이상인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우리 나라의 교회는 사회의 모든 계층 중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 중의 하나이다.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그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해 나갈 때에는 균형추의 역할을 다함으로서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사회의 의식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사조(思潮)의 흐름을 무시하고 보수의 입장만을 강조하다 보면, 두 가지 중의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 전락이 될 것이다. 첫째는 그 사회의 주류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든가, 아니면 둘째, 그 사회의 다수계층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의미없는 존재로 말이다. 첫째의 경우나 둘째의 경우나 모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선교라 함은 반드시 그 사회의 한 가운데에서 외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의 변화는, 아니 전세계의 변화는 말 그대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제4의 물결'이요 '메가 트렌드'(Mega Trend)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다. 20세기말의 현재를 사는 성도들이 20세기의 문명이 가져다 준 첨단기술들을 이용하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거기에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다. 아니, 있기는 있다. 정치적인 사건이나 충격적인 범죄 이야기는 종종 설교의 주요주제로 다루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자체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하니 당연히 성경적인 시각으로 주요 이슈를 다루는 토론의 장이 생길 리가 만무하다. 이러한 토론의 장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처방을 내세운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사람이 취하는 입장은 대세주의(大勢主義)다.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러한 태도는 종종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두그룹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로 쉽게 비약한다. 반면에 또 하나의 부류는 계속 경계의 입장을 취한다. 아무리 정보통신 기술이 편하고 좋더라도 어쩐지 우상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토론과 사색의 결과는 아니다. 단순히 그럴지도 모른다는 풍문과 어떤 교역자의 그럴듯한 이야기가 이러한 결론의 모든 원천인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행동수단은 일단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안심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쩐지 교회라는 이미지는 소박해야 하고, 첨단 문명의 기술이나 이기와는 관계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선입관도 크게 작용한다.

우리가 어떤 문명의 기술이나 이기가 우상이나 아니냐를 논할 때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논제는 바로 '세계관(World View)이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세계관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곧 시작이요 끝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곧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의 하나이다. 반면에 이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 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 View)이다. 이 세계관의 중심 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 영원불변하시며,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 중의 중심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현재의 세상,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세상이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세상인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게끔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또한 이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야 하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독특한 신분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여 모든 문제를 사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지성이요 마음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독교 지성과 마음은 누구든지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지성과 마음을 사용하

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쌓아야 한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기독교 지성과 마음’이라는 총이 손에 주어진 다. 그러나 이러한 총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총을 조준하고 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총을 다루고 목표물을 향하여 쏠 줄 아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병사가 어찌 전쟁터에서 목표물을 제대로 쏘아서 맞출 수가 있겠는가? 우리 앞에는 많은 세상의 목표물이 산재해 있다. 성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 재물의 문제, 첨단기술에 관한 문제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지성과 마음으로 온전히 치유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썩어 없어질 이러한 것들을 헛된 세상의 세계관에 의하여 영원한 것인양 섬기는 어리석은 심령을 온전히 치유하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한 기독교 지성과 마음 뿐이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다. 물론 우상은 더욱더 아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기술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활동과 사고의 산물이다. 즉, 사람들은 세상에서 활동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 벌거벗은 채로 시작한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나타난다(계 21:2). 우리는 하나의 형성된 세상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이나 기술적인 발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시키시는 일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은 분명히 어두운 면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일련의 기술적인 진보가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제보를 따라서 이루어져 왔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기술진보의 모든 것이 사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과학사를 통하여 인류 문명에 혁혁한 공헌을 쌓은 많은 과학자들 중의 선두주자는 거의 모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인 호이카스의 연구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기독교 지성과 마음은 결코 안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바라보게 허락하지 않는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캐내어 이를 드러냄으로써 하나

님이 명하신 문화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적 성취 그 자체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다. 그 성취물은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악에게 봉사할 수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공생에 뿌리를 둔 기술을 권한다. 하나님은 차를 타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걸어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하게 보시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같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요 17:15).

#### IV. 맺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점점 정보화사회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사회는 비단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데이빗 라이언, 1992). 요즘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도 그 한 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보통신 발달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

정보통신 기술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이를 사용하느냐 아니냐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자세한 면면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기독교 지성과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해리 블레마이어(Harry Blamires)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하여야 하는가?」(두란노간, 1991)에서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세속적으로 사고하는 것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언급하였다.

또한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독교적 지성과 마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기독교 지성과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종되어 버리고, 지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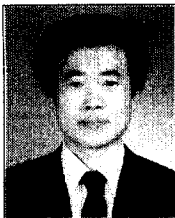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공허한 개인논리와 감정적인 대응논리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를 모른 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세상은 어느덧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정결한 손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성으로 올라가야 할 우리의 청년들은 인터넷이 주는 재미와 쾌감에 폭 빠진 채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기독교 지성과 마음으로 평가하고 사고하는 것에 대하여 훈련하지 않는가? 우리가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이러한 훈련을 등한시한 채, 어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것을 원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문화의 변화에 대해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가?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시대사조는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과거의 철학적 전통과 그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자처하는 현대 철학의 많은 거장들이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는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생명이 없다. 거기에는 현학적인 논리와 사고의 전개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건전한 기독교 지성과 마음은 우리 시대가 처한 변화의 물결에 대하여 생명있는 비판을 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 참고문헌

- 데이빗 라이언, 「실리콘 소사이어티」, CUP, 1992.
- 해리 블레 마이어(Harry Blamires),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하여야 하는가?」, 두란노, 서울, 1991.
- Bates, J., "The role of emotion in believable agents", *Communications of the ACM*, 37(7), 1994, pp. 122~125.
- Etzioni, O., Lesh, N., and Segal, R., Building softbots for UNIX. In Etzioni,



- O., editor, *Software Agents-Papers from the 1994 Spring Symposium* (Technical Report SS-94-03), AAAI Press, 1994, pp. 9~16.
- Goodwin, R., "Formalizing properties of agents", *Technical Report TUTR* 93~101, Tulane University, 1993.
- Houlder, V., *Special Agents*. In *Financial Times*, 15 August 1994, p. 12.
- Liu, J. I. C., Yun Y. Y., and G. Klein, "An agent for intelligent model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7(1), 1990, pp. 101~122.
- Maes, P., "Agents that reduce work and information overload", *Communications of ACM*, 37(7), 1994, pp. 31~40.
- Shoham, Y., "Agent-oriented programming", *Artificial Intelligence*, 60(1), 1993, pp. 51~92.
- White, J. E., "Telescript technology: The foundation for the electronic marketplace" White Paper, General Magic, Inc., 2465 Latham Street, Mountain View, CA 94040.



■ 이 건 창 ■

공주 출생, 성균관대학에서 경영학 전공,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과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보람투자자문에서 조사분석 차장 역임, 경기대학, 한동대학에서 경영정보학 교수 역임, 현 성균관대학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서울지부장, 『통합연구』 편집장으로 활동 중.